

제164호

발행일 : 서기 2024년 8월 28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ngu@naver.com

「인터넷 족보 등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계서원 복설」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안동김씨 순례기」 제2편 작업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가 지났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안동김문은 상락 충렬공(휘 방경) 중시조 이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시대변화와 역경 속에서도 종친 여러분이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는 대종회를 정점으로 파종회와 지역 종친회가 함께 발전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종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예천의 ‘물계서원 복설’에 대한 진행 상황은 현재 예천군의 예산으로 발주하여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가 올라오면 2월에 진행했던 학술대회 자료와 함께 예산 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면밀히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종회에서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족보 업데이트(신규·추가·수정 등) 건은 7월 말까지 3,000여 건이 접수되어 현재 등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대략 2개월 정도 예상되는데, 아직 접수를 못 하신 종친분들은 등재 기간 내에 접수하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종회 또는 파종회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족보는 12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초에 만화로 제작하여 배포해 드린 ‘안동김씨 순례기’ 제1권 뿌리를 찾아서, 후속작 제2권의 시나리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 올해 말까지 완성되면 각 파종회 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안동김문은 상락 충렬공 후손임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조상을 받들고 종친 간에 화목한(송조돈목崇祖敦睦) 애종심이며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보존하고 정신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첫 번째는 안동 세일사에 참석하는 길입니다.
올해에는 안동 충렬공 중시조 시제일이 양력 11월 9일(토요일)이며, 대종회에서는 참배 종원 수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변의 종친분들에 독려하셔서 후손들이 참여하여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종회는 함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건실한 재정관리는 물론, 실천적으로 규약을 이행하며 종친 간에 소통하고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대종회가 되겠습니다. 종친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거듭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 석 한

2024년 갑진년 세일사 일정 안내

항사 선조님	일자		소재지	장소	비고
	음력	양력			
충렬공(휘 방경)	10.09	11.09(토)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0	능동재사	대종회 02-2244-3717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0	상락재	
문영공(휘 순)	10.07	11.07(목)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29-1	경모재	김장희 010-4741-6969
개성윤공(휘 철림)	양 10월 2째주 일요일	10.13(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3	묘소	김이경 010-5215-6752
전서공(휘 성목)	10.03	11.03(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496-1	학당재	김재석 회장 010-9245-7701
부사공(휘 천순)	10.16	11.16(토)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492	묘소	김원호 회장 010-2743-1855
양간공(휘 승택)	양 10월 3째주 일요일	10.20(일)	경기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7	금수단	김윤만 회장 010-2299-6600
상락군(휘 묘)					
문온공(휘 구용)					
안정공(휘 구덕)	음 10월 1째주 일요일	11.03(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 송림리 산67	묘소	김흥기 회장 010-4812-1763
도평의공(휘 구정)	양 10월 3째주 일요일	10.20(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만취당길 17	만취당	김희윤 종손 010-3615-5446
문숙공(휘 영돈)	10.06	11.06(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가전1길 198-33	영모재	김규원 회장 010-5464-9393
상락백공(휘 진)					
제학공(휘 익달)					
정간공(휘 영후)	10.05	11.05(화)	충북 청주시 오창읍 모정리 167	영모재	김형남 회장 010-5480-0135
영삼사공(휘 천)					
안렴사공(휘 사렴)					
익원공(휘 사형)	10.06	11.06(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1리 214-2	낙포재	김영수 회장 010-4711-8127
서운관정공(휘 수)	10.01	11.01(금)	경기 의왕시 포일동 142-5	광곡재	김각영 회장 010-5341-5100
정의공(휘 철)	음 11월 1째주 일요일	11.03(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증평리 431	묘소	김수선 회장 5209-2815

”지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위한 첫 걸음,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형동 의원실과 지도포럼(공동위원장 김현명·양보경)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주제로 강연과 발표,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도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강리도(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문화적 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도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도포럼은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과 김현명 전 주이라크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김영환 총령공김방경기념사업회 회장, 김원 건축환경연구소장(건축가) 등 3명의 고문과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 등 10명의 위원이 지난해 <강리도>가 제작된 9월 첫째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제정한 이후 첫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이날 개최된 학술심포지엄은 국가기념일로 ‘지도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주제로 강연과 발표,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도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강리도(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문화적 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도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가 경제의 원천이 되는 지도를 세계 속에 알리는 것이 ‘지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이유라고 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 회장은 축사에서 1402년에 19대조인 좌정승 김사형 할아버지의 주도하에 그려진 동양에서 가장 빛나는 세계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는 기록을 보면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고 한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리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보존 보호해야 할 중요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의미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 활동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보경 지도포럼 공동위원장은 학술 심포지엄을 마치며 “한국의 지도 제작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세계 지도의 날(WORLD MAP DAY)’이 제정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이는 세계와의 역사적, 문화적 소통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미래 생존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1부 순서의 사회는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이 맡았고, 양보

경 지도포럼 위원장의 개회사와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진종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국회의원 김형동, 권영진 의원과 김석한 안동김씨대종회장의 축사와 김승수 국회의원의 소개가 이어졌다. 기념촬영 후 2부 주제 발표에서는 서해란 전 국립도서관장이 진행을 맡았다. 우리 문중에서는 김영환 ‘강리도지’ 편찬위원장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복원본 제작과 그 의의」에서 <강리도>의 기관 소장본을 소개하면서 <강리도> 복원본 제작과 <강리도지> 발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각 소장본 지명의 오류 비교를 통해 ‘강리도 21세기본’을 제작하고 있는 과정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영 사무총장(강리도지 편찬위원)은 <강리도> 복원 및 발간사업을 ‘총령공김방경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려는 이유와 <강리도> 제작은 중요 국가사업이 아닌 좌정승 김사형의 프로젝트로 보는 견해에 대해 김영환 편찬위원장, 양보경 지도포럼 위원장과 토론하였다. 또한 청중석에 있던 김순홍 전 광주대 교수는 “<강리도>를 단지 ‘지도’라는 시각에서 보고 ‘지리학’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고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넓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 : ‘지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후 14:00 ~ 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 주최 : 지도포럼(지도의 날운영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실, 대한지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총령공김방경기념사업회		
● 주관 : 지도포럼		
시간	식순	내용
	1부순서	사 회 : 이정구 전성공회대 총장
2:00~2:30	개회식	개회사 : 양보경 지도포럼공동위원장 환영사 :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진종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장 축 사 : 국회의원 김형동·권영진·김승수 김석한 안동김씨대종회장
2:30~2:40	장내정리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2부순서	사 회 : 서해란 전국립도서관장
2:50~3:15	1주제 발표	1402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지도의 날 (양보경 전성신여대총장, 명예교수)
3:15~3:40	2주제 발표	강리도의 세계관 / 강리도교육 이대로 좋은가? (김선홍 『1402 강리도』 저자, 전청다오 총영사)
3:40~4:05	3주제 발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복원본 제작과 그 의의 (김영환 강리도지 편찬위원장)
4:05~4:30	4주제 발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외교적 활용 (이시형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4:30~4:40	휴식	다과 음료 및 장내정리
4:40~5:40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좌장 : 박경립(한국전통문화대 석좌교수) 주제 토론 : 오상학(제주대 교수) 주제 토론 : 임은진(공주대 교수) 주제 토론 : 김태영(강리도지 편찬부위원장) 주제 토론 : 김도균(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주제 토론 : 문상명(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주제 토론 : 장상훈(국립민속박물관 과장)

이날 지리 및 지도와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정부 기관, 국회의원(김형동·권영진·김승수), 안동김씨 종친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특히 안사연 김신묵 학술이사는 ‘요동백 김응하장군 심하 전 적지 및 만주지역 유적 답사’ 자료집과 본인이 저술한 ‘조선 5개궁궐 답사’ 100질(1질 2권)을 회원들에 배포했고, 익원공파 수원 참의공 중 중에서 점심식사를, 익원공파종회에서는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안사연(安史研) 2/4분기 임원회의 개최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는 2024년 7월19일(금) 서울 서초동 소재 이남장에서 김윤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4분기 임원회의를 열고 「강리도지편찬위원회」에서 요청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대한민국 본 제작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안건 - 「강리도지편찬위원회」협조 요청에 따라, 안사연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바, 먼저 안사연 회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로 하고 금년 말까지는 회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할 것을 홍보하기로 하고, 대총회와 각 파총회에도 이러한 취지를 알려 성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 제2안건 - 안사연의 하반기 사업 중 하나인 “제주도~추자도 선조님 유적답사” 는 대총회와 각 파총회의 가을 세향일정을 최대한 조율하여 2024년11월24일(일) ~11월27일(수)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정하였다. 참여 대상은 회원·종친(가족동반)으로 선착순 모집하기로 하였다.

■ 기타 사항

1) 안사연 2/4분기 정기답사는 2024년 8월24일(토) 『강리도(疆理圖)』대한민국본 제작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있을 ‘제2회 지도의 날’

행사를 앞두고 안사연 회원과 ‘지도포럼’ 관계자 합동으로 양평 구정승골 익원공(휘 사형) 선조님 묘역 일원을 답사하고 세미원-배다리-두물머리 등 주변 관광지를 여행하였다. 이날 09:00시 잠실역 9번 출구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하였다.

2) ‘제2회 지도의 날’ 학술행사가 2024년 9월 3일(화) 동북아역사재단의 후원과 지도포럼,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외교협회, 대한지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한국지도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주최로 ‘백두산과 조선족 지도와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사연 회원과 종친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강리도지 후원금 현황 (8월 25일) 현재 (₩118,350,000원)

순서	소속	이름	입금일자	성금	비고
1	문온	영환		100,000,000	편찬위원장
2	부사	천호	7/17	100,000	파총회장
3	문온	윤식	7/25	10,000,000	편찬위원
4	안렴	형남	7/29	1,000,000	파총회장
5	군사	필규	7/30	100,000	안사연 회원
6	문온	신묵	8/18	1,000,000	학술위원장
7	익원	태철	8/19	1,000,000	대총회 이사
8	〃	재영	8/19	1,000,000	대총회 고문
9	〃	태신	8/19	1,000,000	대총회 이사
10	〃	태연	8/20	1,000,000	파총회 사무국장
11	군사	태영	8/21	1,000,000	대총회 사무총장
12	문온	윤만	8/25	1,000,000	파총회장
13	제학	규철	8/25	100,000	대총회 이사
14	익원	태병	8/28	50,000	안사연 회원
계				118,350,000	
※성금전용계좌 : 농협 355-0044-1709-83 충렬공기념사업회					

- 안동김씨역사연구회 총무 형식 -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보인고등학교 우승 !!!



▲우승트로피를 안은 김석한 보인고이사장(대총회장)

2024년 6월 14일 상주 시민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고교팀 38개 팀, U-17 유스팀 32개 팀 총 전국 70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주시에서 처음 개최한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보인고등학교가 지난해 우승팀인 경북 자연과학고등학교(이하 경자고)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하며 성황

리에 마무리했다.

보인고등학교는 그동안 왕중왕전, 대통령금배 우승을 포함해서 전국대회 23번 우승했고, 준우승 16번을 기록한 축구 명문이다. 이 학교 출신으로 구자철 선수를 비롯해 최철순, 김대원, 이한범, 이재익 선수 등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했다.

입학실적도 크게 향상하여 2024년 전국 2400개 고등학교 재학생중 4위로 경쟁률이 높은 학교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주 史적인 여행 / 양평 김사형 묘역을 가다.

2024.6.2.(일) 20:10 KBS 1TV 방송



▲상락부원군 김사형이 만든 최초의 세계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사적인 여행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적인 양평은 어떤 모습일까?

어느 곳보다 史사적이고 私사적인 이야기가 풍성했던 양평.

하나하나 매력으로 가득한 경기도 양평의 아주 史사적인 여행

<아주 사적인 여행-인물 속 숨은 천년의 역사, 경기도 양평> 편에서 개그우먼이자 MC인 박미선과 <아주 사적인 여행>의 역사마스터 심환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이 진행하고 명품 액션배우 장혁이 함께했다.

명당 중의 명당으로 조선의 아홉 정승이 묻혀 있다고 해서 '구정승골'로 불리는 곳에 조선 건국 일등 공신인 상락부원군 익원공 김사형(金士衡, 1333~1407) 선생이 잠들어 있다.

조선 개국공신 익원공 김사형 묘(翼元公 金士衡 墓)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구정승골에 부인 죽산 박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길고 납작한 화강암으로 3단의 둘레석을 오각형으로 둘렀다. 묘역에는 묘표, 상석, 향로석, 장명등 각 1기, 문인석 1쌍이 있고 묘역에서 약간 떨어진 마을 입구에 김사형의 신도비각이 있다. 묘표는 원래의 것이 없어져서 다시 세운 것이다. 사모지붕을 한 장명등은 앞뒤에 창이 넓게 뚫려 있고 양옆은 막혀 있어 조선 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묘의 양옆에 서 있는 문인석 역시 조선 전기 문인석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01년 9월 17일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107호로 지정되었다.

익원공 김사형은 혼란스러운 시절이었던 고려말을 지나 피바람이 불었던 조선 초기까지 한 번도 탄핵당하지 않을 정도로 인품이 훌륭했을 뿐 아니라, 대마도 정벌과 명나라 사신 등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한 인물 또한 김사형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1402년(태종 2년)에 만들어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조선, 중국,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인도, 서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파로스 등대까지 표현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는데,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정확한 지리 정보를 담은 우수한 지도라 평가받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담긴 새로운 나라 조선의 세계관과 포부, 숨은 비화를 알아보았다.

효헌공 종중 대사헌공(휘 성동) 묘소 참배



이조판서·우참찬을 역임하시고 효헌으로 시호를 받으신 김찬(金瓚, 1543~1599) 할아버님의 후손들로 수원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익원공파 효헌공 종중(회장 金得會)은 지난해 포천 동추공(휘 宗淑) 및 문정공(휘 礪) 묘소 참배에 이어서 금년 5월 11일(토), 32명의 후손들이 시흥시 하상동의 대사헌공 묘와 대사헌공의 장인인 문량공 사숙재 강

희맹(姜希孟, 1424~1483) 묘에 참배했다.

부평부사를 지내시고 대사헌에 증직되신 휘 성동(誠童)선조님의 자는 명보(明甫)로 좌의정(휘 礪)의 아들이며 문량공(文良公) 강희맹(姜希孟)의 사위이자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의 외손자이다. 1492년(성종 23) 적성현령을 지내던 중 문과에 급제한 뒤, 부평부사에 제수되고,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공무에 대한 성실성과 뛰어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상감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44세를 일기로 졸 하였다. 묘소는 쌍분으로 이루어진 봉분 앞에는 방부이수(方趺螭首) 양식의 백(白)대리석의 묘갈이 건립되어 있고 새로 단장한 상석, 향로석, 장명등, 문인석, 옛 문인석 한 쌍이 있다. 비갈은 정사룡(鄭士龍)이 짓고 김종수(金從壽)가 썼다. 비신 건립 연대는 '가정 15년(1536년) 12월 입석'이다.

묘 아래에는 차남 김려(金瀾)의 묘가 있고, 그 아래 구릉에 현손(玄孫) 김이경(金以鏡)의 묘가 있다.

-대중회 이사 태철-

척약재 김구용 물계서원 봉안문 - 높은 이광정

勿溪書院惕若齋追享奉安文 / 訥隱集 李光庭

洛水載英。篤生哲人。衿姿偉器。萃于一門。展矣先生。克肖其秀。心潛道腴。蟬蛻夷陋。鬱爲名儒。伯仲圃老。刮磨講究。乃東吾道。惕若名齋。進修乾乾。江山爲堂。雪月盤桓。風襟灑然。胥海無津。退處于家。如樂終身。及出蹇蹇。死生以之。萬里任患。天南極陲。孤舟汎汎。有去無歸。多景樓咏。至今爲悲。餘風振古。懦夫髮豎。伊余鄉邦。慕德惟舊。尸祝之論。越自先輩。縟儀未遑。後死攸慨。異世流芬。有虛白公。合謀并尊。迨其孟冬。矧茲勿院。兩賢曾崇。惟忠烈公。與鶴沙翁。公暨虛老。乃孫乃祖。並享其間。有儼俎豆。氣類以祔。其光不顯。人情則愜。神理非遠。濟濟紳佩。左右齊邀。仰瞻梁机。誰無感發。邈矣西川。蜀魄方皇。公靈如水。沛哉斯堂。

낙동강이 준걸을 실어 보내, 도타이 철인(哲人)을 내니, 큰 자질과 위대한 그릇을 갖춘 인물이 한 가문에 모여 있네. 진실로 선생께서, 능히 빼어난 기운을 이루어, 그 정수에 잠심하여, 이적(夷狄)의 비루한 티를 깨끗이 벗으셨네. 성대한 명유(名儒)가 되어 포노(圃老, 정몽주)와 명성을 나란히 하고, 절차탁마(切磋琢磨)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도를 동방에 뿌리내렸네. 재사(齋舍)의 이름을 척약(惕若)으로 하여, 부지런히 덕업(德業)을 닦고, 강산(江山)을 집으로 삼아, 눈 쌓인 달빛 아래 배회 하였네. 흥금이 시원스러워, 바다같이 넓은 가슴 끝이 없고, 물러나 집에서 지낼 때는, 종신토록 그 생활을 즐길 듯 하였네. 조정에 출사(出仕)하여 충정을 바칠 때에는, 생사를 거기에 맡겨, 만 리 먼곳에서 환란을 당하니, 하늘 남쪽 지극히 외진 곳이었네. 외로운 배 떠나가, 가서는 돌아오지 않으니, 다경루(多景樓)를 읊은 시가, 지금까지도 슬프네. 옛날의 남은 여운이, 나약한 사람마저 머리털이 곤두서게 하여, 나의 고향에서, 그 덕을 흠모한 지 오래 되었네. 제향(祭享)하자는 논의가, 옛날 선배 때부터 있어 왔지만, 성대한 의식을 거행할 겨를이 없었으니, 우리

후인들이 개탄했던 일이네. 후세에 그 향기가 흘러, 허백공(虛白公)이 계시니, 함께 존숭(尊崇)하자는 의논을 한 때가, 그해 초겨울이었네. 더구나 이 물계서원(勿溪書院)은 일찍이 두 현인을 존숭하였으니, 충렬공(忠烈公)과 학사옹(鶴沙翁)이시네. 공과 허백공은, 이분들과 손자와 조부간인데, 여기에 함께 배향하여, 엄숙하게 제사를 받드네. 같은 기운에 따라 배향(配享)하니,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인정(人情)으로 보면 흡족하니, 신(神)의 이치 먼 것이 아니네. 수 많은 관원들이, 좌우에 단정히 늘어서고, 들보와 궤안을 우러러 보면, 누군들 감개가 일지 않겠는가, 멀리 서쪽 중국의 냇물, 촉(蜀) 땅에서 혼백이 방황하시네. 공의 영령 물과 같으니, 거침없이 이 사당에 흘러오소서.

척약재 김구용(金九容, 1338~1384)

문온공파 파조이신 척약재 김구용의 초명은 제민, 자는 경지, 호는 척약재, 시호는 문온이다. 고려후기에 정치가이자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상락공 김방경의 현손이다.

척약재는 외조부 급암 민사평의 집에서 성장하며 외조부에게 시와 학문을 배우고 이제현, 정자후 등에게 지도를 받았다. 또 이색, 정몽주, 이숭인, 정도전, 하륜, 이집 등 당대의 문사들과 교유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강론하며 우의를 돈독히 했다.

1355년에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371년에 강릉도 안렴사가 됐고 또 1372년 8월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1375년에는 삼사우윤에 제수됐으나 언사(言事)로 죽주에 유배되었다가 여흥으로 옮겨 강가에 ‘육우당(六友堂)’을 짓고 강(江)·산(山)·설(雪)·월(月)·풍(風)·화(花)의 자연을 즐기며 한거했다.

1382년 대사성이 됐고, 1384년 판전교시사로서 행례사(行禮使)로 요동에 갔다가 외교적 문제로 남경에 압송됐고, 다시 운남성 대리(大理)로 유배 가던 도중 노주 영녕현 강문참(江門站)에서 47세의 나이로 순직했다.

문집으로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이 전해진다. 남원 용장서원, 예천 물계서원에 배향되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임원 ·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06.01. ~ 2024.8.25.)

◎ 부회장회비 3십만원

(문)윤만(구로), (인천)성묵(인천)

◎ 이사회비 2십만원

(전)태진(고양)23년,24년, (제)운철(성북), (익)윤묵(종구)

◎ 통상회비 1십만원

(군)종용(수원), (제)남응(천안), (익)철희(인천), 창묵(춘천)

◎ 통상회비 5만원

(군)용회(파주), (문)영희(은평), 동묵(구로), (도)정길(태안)

(제)재응(광진), (按)재윤(청주), (익)재복(당진),

정묵(부천), 태웅(서산), 윤대(태백), 주희(예천), 용일(영월)

◎ 통상회비 3만원

(군)재향(강동), 재철(양천), (전)경희(영등포), (도)영복(의성),

(按)태언(송파), 덕균(대전), 옹호(마포), (익)수덕(정읍), 봉수(인제),

정희(천안), (서)세영(고양), (?)19대손 정묵(?)

◎ 통상회비 2만원

(전)태익(철곡), 태홍(창녕), (익)대진(남양주), 한영(진주)

◎ 찬조금 3십만원 (부)정환(제주)

◎ 찬조금 2십만원 (익)형식(인천)

◎ 찬조금 1십만원 (익)수엽(고창), 태길(청주)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2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3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3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제한없음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겨레의 큰 스승, 백범 김구선생 서거 제75주기 추모식 거행



6월 26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선생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백범 김구선생 서거 제75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김구선생의 유족 및 김석한 안동김씨대종회장, 박유철 백범김구기념사업회장,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악대의 추도 연주에 맞춰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숙명여대 합창단의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 출생인 백범 김구 선생은 1894년 동학군의 선봉장을 역임한 데 이어,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이동녕 등과 함께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1908년 독립지사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기울어가는 조국을 구하고자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장에 선임된 김구선생은 이후 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마침내 조국의 자주독립을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김구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다”라면서 “국가보훈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뜻을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선생 큰 며느님(김인의 배우자) 애국지사 안미생



▲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안미생 지사의 건국포장 기증식에 참석한 안 지사의 외손녀 자넷(Janet) 부부와 김미 백범김구기념관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25일 백범김구기념관은 안미생(安美生, 1917~2008) 지사에게 지난 2022년 추서된 건국포장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안 지사의 딸이자 백범 김구선생의 맏손녀인 김효자(金孝子, 1943~) 여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안 지사는 충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서, 한국독립당 당원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그는 백범선생의 며느리인 동시에 안중근 의사의 조카이기도 하다.

시할머니 곽낙원(郭樂園) 선생(건국훈장 애국장 1992년), 시아버지 백범 김구 선생(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962년), 남편 김인(金仁, 1918~1945) 지사(건국훈장 애국장 1990년), 시동생 김신(金信, 1922~2016) 지사(건국훈장 애국장 1990년)에 이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면서 일가 5인 독립유공자로 훈포장이 추서 되었다.

하지만 안 지사는 미국 이주 후 연락이 끊긴 채 이미 2008년 별세했고, 남편 김인 지사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인 김효자 여사도 행적을 찾을 수 없어 건국포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백범의 차남 김신 장군(6대 공군참모총장, 국회

의원, 교통부장관)이 그의 딸 김미(金美) 백범김구기념관 관장과 사위 김호연 빙그레 회장에게 김인 지사의 가족을 찾아 보살펴 달라는 유지를 남겼다. 김 회장과 김 관장 부부는 수소문 끝에 지난해 뉴욕에서 김효자 여사를 직접 만나 한국 정부의 건국포장을 전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올해 2월 훈장을 전수받은 김효자 여사는 어머니 안미생 지사의 건국포장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백범김구기념관에 밝혔다.

따님인 김효자 여사도 연로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고 그녀의 딸이자 백범의 증손녀인 자넷(Janet) 부부가 대신 한국을 찾아 이날 기증식을 진행했다.

부전자전, 목숨보다 정의를 우선한 백범선생의 장남 독립운동가 김인(金仁)



해방 전후사를 살펴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술한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을 맞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일이다. 더구나 젊디젊은 혁명가이자 선구자들이 해방의 감격을 보지 못한 채 이국(異國)땅에서 스러져 간 일은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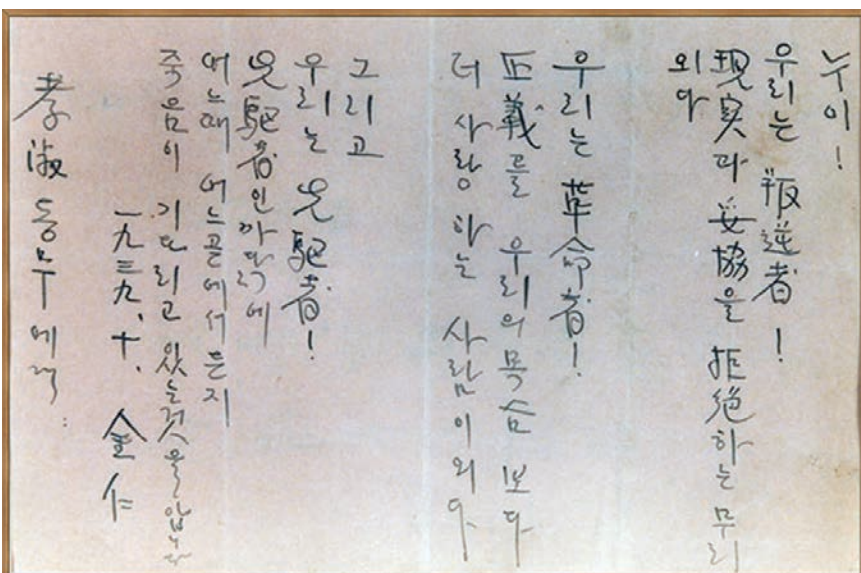
임시정부 백범 김구 주석의 장남 김인(金仁, 1918~1945)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열일곱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독립운동을 시작했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해방을 맞지 못하고 스물일곱 살 되던 해인 1945년 3월 29일에 쓰촨성(四川省) 충칭(重慶)에서 병사했다. 다섯 달 후에 있을 조국 해방의 감격을 알지 못한 채 젊은 아내 안미생(安美生)과 외동딸 효자(孝子)를 남기고 이국땅에서 스러진 것이다.

임시정부가 자리 잡은 중국 충칭시는 당시 석탄 매연과 습한 날씨가 어우러져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이로 인해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며, 독립운동가 김인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다.

폐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살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며느리 안미생이 시아버지 김구 선생에게 남편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다른 동지들도 맞지 못한 비싼 주사를 내 아들이라고 해서 맞힐 수는 없다.”라고 거절했다는 일화는 공평무사(公平無私)를 말하기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충칭의 기후와 그로 인한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기술했다. “큰아들 인이도 역시 폐병으로 사망하였으니, 알고도 불가피하게 당한 일이라 좀처럼 잊기 어렵다”라고 회한을 남겼다.

참척(慘慼)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 김구는 ‘임시정부’가 어떤 의미이며, 나라의 독립은 무엇이었는가. ‘선구자인 까닭에 어느 때든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 김인. 그가 목숨을 걸고 임했던 임시정부는 그에게 무엇으로 남았는가.



출처 - 홍소연(백범김구기념관 자료실장)

누이!

우리는 반역자(叛逆者)!

현실(現實)과 타협(妥協)을 거절(拒絶)하는 무리외다.

우리는 혁명자(革命者)!

정의(正義)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외다.

그리고 우리는 선구자(先驅者)!

선구자(先驅者)인 까닭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1939년 10월 김인(金仁)이 효숙(孝淑) 동무에게.

스물두 살이던 1939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결성할 때, 충칭(重慶)에서 당시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김봉준(金朋濬)의 큰딸 김효숙(金孝淑, 1915~2003)을 만나게 된다. 독립운동을 하던 김효숙은 길거리에서 수첩을 내밀며 글 하나를 써달라고 한다. 김인은 친필로 짤막한 즉흥 시구를 적었다. 그게 지금 소개한 김인의 육필이다.

김인은 자신을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반역자, 정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혁명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선구자로 매겼다. 친필로 쓴 짤막한 즉흥 시구(詩句)이지만 그의 비장(悲壯)함이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청소년기 십 년을 독립운동가 아버지 백범 김구에 의해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이었을 것이다.

-대중회 사무총장 태영-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총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ddundol@hanmail.net

안동김씨대종회 덕적도 종문(宗門) 방문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종친들이 지난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0일(월) 익원공파 전첨공 종친회 집성촌인 인천광역시 덕적도를 방문하여 태현 종친의 환영을 받으며 덕적도 종친회원들과의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덕적도를 방문한 김석한 대종회장과 종친들은 330여년 전 덕적도에 최초 입도한 김효창 할아버지 묘에서 추모 헌작을 올리고, 덕적도 귀너머 안동김씨 종중산과, 3.1운동 기념공원 등 덕적도 주요 해수욕장 및 관광지를 둘러봤다.

덕적도 안동김씨 전첨공 종중 집성촌은 회(會)자 항렬이 150~200명(1900~1960生)으로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덕적도에 거주했으나, 지금은 16가구 정도만 덕적도에 정주하고 있다.

이날 김석한 대종회장은 덕적도 종친회원과 오찬을 나누며 다양한 섬 생활을 듣고 종친들을 격려하였으며, 덕적도 현지 거주자 16가구 및 어르신에게 기념품(인조 담요) 18개를 증정했다. 덕적도 최고 연장자인 김인규(會자 항렬)님은 환영사에서 “교통편이 열악한 덕적도를 방문해 준 안동김씨 대종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강화·옹진 지역구 배준영 국회의원과 안동김씨 종친인 백범 김구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하남을 국회의원 당선인 등 지역 정치인도 대종회의 덕적도 방문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왔다.

김석한 대종회장은 “환대 해 주신 덕적종친회와 축전을 통해 축하해 준 유정복 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김용만 국회의원 당선자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국 안동김씨 집성촌을 돌리보고 종친들과 소통하며 더욱 발전하는 대종회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적도 안동김씨 역사

덕적도 입도조 김효창(金孝昌), 자 자순(子順), 甲午生~壬辰卒, 贈漢城府左尹,

익원공 김사형의 후손으로 전첨공 김종윤(金宗潤)-감찰 침(琛)-청안현감 선손(善孫)의 장자 열(洌)로 계보를 이었다.

김효창 선조님은 17세기 말, 충남 당진에서 황해도로 이주 중에 거센 파도에 밀려 덕적도에 정착하면서 안동김씨의 집성촌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덕적도에 자리 잡은 안동김씨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덕적도에 서당을 짓고, 학교를 설립하고, 향토사를 발간하는 등 덕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안동김씨 대종회(회장 김석한)는 2024년 5월 20일 안동김씨 집성촌 덕적도에서 역사 탐방 문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한 대종회장 등 임원진 및 종친 회원 31명과 현지 덕적도 종친들과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의미 있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덕적도 안동김씨 집성촌은 익원공 김사형의 13世손 김효창 선조님께서 충남 당진에서 황해도 이주 중에 거센 파도에 의해 덕적도에 하선하면서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17세기 말에 덕적도에 자리 잡은 안동김씨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덕적도에 서당을 짓고, 학교를 설립하고, 향토사를 발간하는 등 덕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60년 전 까지만 해도 100가구 이상이 덕적도에 거주했으나, 지금은 16가구 정도만 정주하고 있다.

이날 역사 탐방 문화행사 내용으로는 김효창 선조님 묘역 참배, 3.1운동 기념공원 내 충훈탑 참배, 덕적도 종친 가구 방문 등 섬 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역사 탐방 안내에는 이개 거주 김태현(글쓴이)이 안내하였으며, 오찬은 이개 거주 김인숙, 김태현이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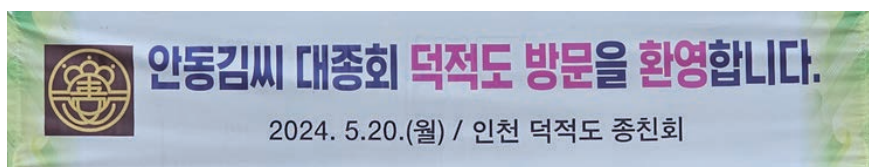
덕적도 북리 거주 종친들의 교통편의 제공은 소재 거주 김태오 종친이 봉사하였으며, 김효창 선조님의 묘역 벌초는 소야 거주 김태홍 종친회장님과 김태중 종친이 봉사하였다.

덕적도 최고 연장자 김인규(會, 90세) 옹은 “자신의 익원공 후손 계보를 소개하고 열악한 서해의 외딴섬 덕적도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김석한 대종회장은 덕적도 거주 종친들에게 기념품을 전달 후 “덕적도 종친들께서 따뜻한 환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며 오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환 충청공기념사업회장은 소재 김태일 목사家 고택을 방문 후 상량문을 살펴보고 “덕적도 안동김씨 선조들의 기록문화가 뛰어나다”고 말하며 덕적도 종친들이 ‘안동김씨 역사 연구회’에 가입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고택을 두루 살펴본 종친은 “옹진군 향토 문화 등재 신청을 하라”고 조언하였다. 안동김씨 대종회의 덕적도 방문에 따른 유정복 인천시장과 안동김씨 후손인 백범 증손자 김용만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와 축하해 줬다.

향후 덕적도 종친회에서는 김효창 선조님의 얼을 되새기고자 당진 송악 손골에서 출발하여 덕적도 뱃길을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덕적도 태현 제공 —



전라북도, ‘고창 만수당’ 유형문화유산 지정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136, 조선시대 건물 ‘만수당(晩睡堂)’이 7월 19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310호로 지정됐다.

‘고창 만수당’은 17세기 후반 진사 오도항이 인근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당’ 자리에 보정(普亭) 김정회(金正會, 1903~1970)의 증조부인 만수(晩睡) 김영철(金榮喆, 1842~1911)이 매입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구휼과 교육 문화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정면 4칸 측면 4칸으로 큰 규모로 지어진 만수당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목조기와 건축물 양식을 계승했으며 중앙 강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을 둔 ‘중청·양측실(中廳·兩側室)’ 구조이다.

- 문화유산 명칭 : 고창 만수당
- 지정종목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310호)
- 지정일 : 2024년 7월 19일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136, 137
- 시대 : 일제강점기 / 1916년
- 구조/형식 : 7량 구조 / 정면 4칸, 측면 4칸 / 팔작지붕 / 一자 양통집
- 규모 : 전체 1동(92.62㎡) - 문화유산보호구역 2필지 1,657.38㎡
- 소유자(관리단체) : 김경식

만수당 판액은 조선 말기에 전라관찰사를 지낸 서예가 해사(海士) 김성근(金聲根, 1835~1919)의 필체이며, 주련은 예조·이조판서를 지낸 서화가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 1853~1939)의 시와 글씨이고 ‘만수당기’는 문유(文儒)로 추앙받았고 개항기 을미사변 후 호남 창의 총수로 활약한 의병장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지어 다양한 문인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됐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만수당은 마을의 구휼활동 등 지역사회 의 구심점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지방건축사 정리에 필요한 표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아궁이를 배면에 배치해 건물의 정면성을 강조하면서 배면 고상 마루를 통해 건물의 운율감을 강조했다.

전체적인 구조가 견실하고 소박하며 일곽(一廓)의 구성을 잘 갖추고 있으며 전북 자치도 민속문화 유산인 ‘김정회 고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역사성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 유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안동김씨 익원공파 가문이 고창읍 도산리 도산마을 136번지에 터를 잡은 뒤 회천정사(晦泉精舍)와 강당인 만수당(晩睡堂)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휼과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 큰 노력을 해왔으며 서당교육과 근대교육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김경식박사 저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김경식 고창 연정교육문화연구소 소장의 <호남항일민족교육 전개사 4>(도서출판 조은)가 2024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연정교육교육문화연구소의 31번째 연구총서인 <호남항일민족

교육전개사 4>는 지난 7월 19일 학술원이 발표한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인문학(문화·인류학) 분야 우수 도서로 뽑혔다.

<호남항일민족교육전개사 4>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주권침해의 상황을 직관하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호남항일민족교육 역사와 호남민족교육 인사의 친일시비 등으로 채워졌다.

김경식 소장은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익원공(휘 사형) 후예로 고창 출신 유학자인 보정 김정회 선생 손자이다. 고향에서 대대로 이어 오는 가색(稼穡)에 종사하며, 연정교육문화연구소를 열고 연구하고 있다. 1997년 월간 문예사조에서 수필로 문단에 등단한 수필가이기도 하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를 우대 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학술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학술기관이다.

목사공 휘 숙연 묘지석 발굴

“의왕지역 묘역정비 및 목사공 천묘 공사” 소개-[1]



서운관정공파종회 겸 하당공종중회 김각영(金珪永) 이사장(사진)은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대평리 산 34번지에 모신 서운관정공파 파조 김수(金綏)의 증손 증이조 참판 행 양주목사 김숙연(金叔演, 1440~1503)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81번지 선영으로 천묘하기 위해 파묘 중, [조선조 연산 11년, 서기 1505년 12월 30일 정

[1] 목사공(牧使公)의 묘지 유래 및 현황

공은 증시조 충렬공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의 8세손이고, 서운관정공(휘 綏)의 증손으로 휘는 숙연(叔演)이요, 자는 유양(幼亮)이다. 관찰사공(휘 自行)의 아드님으로 공께서는 1440년(세종 22)에 출생하여 1503년(연산 9) 12월 29일 64세에 별세하셨다.

배위 정부인 나주김씨는 1444년(세종 26)에 출생하여 1488년(성종 19) 향년 45세에 별세하셨다. 정부인은 공이 청주목사 시절 청주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셨으나 당시 연산군의 단상법(短喪法)으로 서울 근교(세장지 반대방동)로 모시지 못하고 충청도 정산 조정산 언덕(가야피)에 공보다 먼저 장례하고 5년 후 공을 이곳에 합함(合窆)하여 모시게 되었다.

이후 비석이 파손되어 서기 1939년에 17세손 진영(晉永)께서 비문을 보찬(補撰)하고, 19세손 관호(寬浩)가 비문을 써서 정산 가야산 공(公)의 묘비를 다시 세웠다. 서기 1990년 4월 6일 개사초하고 호석과 망주석을 세웠으며, 2013년 10월 23일 묘소 앞에 공의 사적비를 건립했다. 그러나 2023년도 여름 집중호우로 묘지의 우측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묘지 앞 중앙에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하여 묘역 보수를 해야만 했다. 2023년 8월 현장 조사를 하고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의 묘소만을 다른 지역에 홀로 모시기보다는 서울 근교 의왕의 세장지(世葬地)로 천묘하여 묘소 관리와 후손의 참배를 도모하기로 했다.

[2] 목사공(牧使公) 묘 파묘 및 묘지석 발굴

목사공의 파묘는 2024년 6월 14일 아침 8시에 회장단(珪永, 德永, 圭相, 詳浩, 正善)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제를 봉행하고 곧이어 묘지의 머리석과 판석을 철거하고 하부 기반석을 떼어낸 뒤 봉분을 헐기 시작했다. 봉분을 헐어 묘지에서 50cm 정도 깊이 파았을 때, 묘지 왼쪽에 백호의 삽날이 암석(岩石)에 걸리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굴착 면을 정리한 결과, 일반 판암(板岩)으로 덮은 방자형(方字形) 4각 석함(石函, 폭 10cm의 갓돌로 둘러놓은 상자)이 나왔다. 위의 뚜껑을 열고 보니 흰 칠사로 십자(十字)로 맨 도자기지석(陶瓷器 誌石)이었다.

지석은 4매로 규격은 [가로 18cmx 세로 25cm-두께 2cm] <그림-5, 7 참조>

묘지의 토질은 좋았다. 붉은 황토로 일반 자연 상태의 습윤(濕潤)을 가진 흙이었다. 깊이 1m쯤에서 검은 숯가루가 나오기 시작했다. 숯가루의 두께는 50cm 이상 되는 듯했다.

이 정도의 깊이에서도 관(棺)은 노출되지 않았다. 한 50cm를 더 깊이 파 내려가니(지표에서 약 1.5m) 부식된 나무관(木棺) 부스러기가 나왔다. 이때 장례사(葬禮士)가 내려가 조심스럽게 나무 부스러기를 치우고 호미로 살살 파보니 검게 변색된 유골(遺骨)이 나왔다. 오래되어서인지 머리 부분(頭骨)과 가슴 부분은 진토되어 흔적이 없고, 하체의 대퇴부(大腿部)와 경골, 늑골, 상완골 외 여러 점이 노출(露出)되었다. 배위 역시 같은 형태로 머리 부분과 가슴 부위 유골은 없었고, 다리 부분과 늑골 몇 점만이 발견되었다. 장례사가 유골을 완전히 수습한 후, 칠성판(七星板)에 각각 모셨고 운구차(運柩車)로 의왕 천묘지로 이송했다. 의왕의 하관식은 오후 3시에 봉행했다.<그림-6>

[3] 묘지석 내용

제1판	원판-[1]
有明朝鮮國通訓大夫楊州牧使 金侯墓誌 ① 侯諱叔演字幼亮安東人觀察使諱自 ② 行之子執義諱睦之孫書雲正諱綏之曾 ③ 孫妣貞夫人李氏領院事孟畛之女侯有至 ④ 姓事觀察公甚孝處昆弟諸母無間言 ⑤ 篤志爲學竟不以科第顯睿廟初仕 ⑥ 爲宣傳官中進士成廟二年遷都總府 ⑦ 都事由尙衣院判官出知谷山郡守居五年	
제2판	원판-[2]
① 以無故棄官觀親親罷後以功能超授掌 ② 樂正出牧清州復入爲掌樂正庚戌丁 ③ 內憂服闋召以定平府使今 上朝拜 ④ 楊州牧使又拜司宰監正出爲淮陽府 ⑤ 使侯稍有風疾沿牒訊旁邑囚冒大 ⑥ 定奔馳疾發弘治癸亥四月謝病歸 ⑦ 越十二月病復作訣其孤希壽曰古人云 ⑧ 五十不夭吾年今六十有四官亦足矣安 ⑨ 得人皆遂無窮之欲哉言迄整容端	

【역문】 유명 조선국 통훈대부 양주목사 김후 묘지

【1편】 金 侯의 諱는 叔演이요 字는 幼亮이며 安東人이다. 觀察使 諱 自行의 아들이요 執義 諱 陞의 손자이며 서운관정 諱 綏의 증손이다. 母親 貞夫人 李氏의 領院事(判院事) 孟畛의 따님이다. 侯께서 정성으로 관찰사공을 섬겨 극진한 효심이 부모에 이르고 형제간에는 소원하게 하는 말씀을 아니 하셨다. 侯께서는 성품이 민첩하고 총명하며 독실하여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셨으나 과거로 급제하여 지신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 하셨다. 睿宗朝에 처음 벼슬로 宣傳官이 되신 뒤 進士가 되시고 성종 2年 서기 1471년에는 도총부 도사로 옮기시고 상의원 판관을 거쳐 谷山郡守로 나아가 5년간 재임하며 선정을 베푸시었다.

【2편】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공적과 능력이 매우 뛰어나 掌樂院 正을 제수받으시고 이어 청주목사로 나갔다가 돌아오시어 다시 掌樂院 正이 되시었다. 서기 1490년(庚戌) 모친상으로 服을 입으셨다가 관서 지방의 定平府使로 소명을 받으시고 또 楊州牧使로 발탁 되시었다. 今上(成宗)의 조정에서 司宰監 正을 배수하셨고 이어 회양부사로 나가셨는데 侯께서 미미한 풍증이 있어 적기에 치료하여야 함에도 큰 고을의 수장으로 찬바람을 무릅쓰고 관내 순시를 강행하다가 병환이 더욱 심하여 일단 관사로 돌아오셨다. 서기 1503년(燕山 己亥) 4월 마침내 병환으로 사임하고 돌아오시어 그해 십이월 끝내 환후를 이기지 못하시고 永訣하셨다. 외로이 남은 아들 希壽가 말하기를 侯의 말씀이 “옛사람의 말이 오십을 요사(夭死)라고 하지 않나, 내 나이가 금년 육십사 세요. 벼슬도 또한 두 하도다.” “어찌 사람이 끝없는 삶을 얻고자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용모를 단정히 하시고는 앉아서 돌아가셨다 하였다.

【3편】 侯의 인품이 욕심이 적고 대범하여 살림살이에는 구구한 말씀을 아니 하시어도 음식을 두루 나누어 주지 않으면 즐거워 아니 하시며 이로 인하여 집안 살림은 어려운 처지였다. 하루 종일 말씀하시어도 남의 허물은 말하지 아니하셨고, 이른 곳마다 청렴하고 간결하기로 이름이 남았다. 婚娶는 羅州金氏로 귀한 가문의 도총관 金廷俊의 아드님 直長 諱 增의 따님이요, 左議政 節齋 金宗瑞의 외손녀이다. 妣는 孝行心이 깊어 항상 자애롭고 검소하여 시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자손을 의롭게 훈육하여 가내가 화목하고 예의범절이 뛰어났다. 妣께서는 侯를 따라 청주에 사시었는데 1493年(成宗 癸丑)에 작고하시니 나이가 사십오 세였다. 충청도 정산 조정산 언덕에 장례하여 훗날 侯를

제3판	원판-[3]
① 坐而逝爲人溫雅精敏寡欲而鮮言不 ② 區區營產居常飲食不對子弟恒不 ③ 樂以故家屢空言終日未嘗及過所 ④ 至有廉簡名娶羅州右族直長金君 ⑤ 諱增之女節齋金宗瑞之外孫也寔孫 ⑥ 孝而慈且儉得舅姑心教諸子以義方 ⑦ 遇宗族和而有禮從侯在清州而歿 ⑧ 年四十有五葬于忠清道定山縣照井 ⑨ 里之原至是以侯合葬焉女長適監	
제4판	원판-[4]
① 察沈光宗生一男名義欽次適金叔 ② 鈍次適生員宋好智次適崔澋男長 ③ 早歿次即希壽是爲嗣中生員娶縣 ④ 監梁治之女生一男名礪庶子曰百壽千 ⑤ 壽億壽女幼 ⑥ 弘治十八年十二月日正憲大夫行承政 ⑦ 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 ⑧ 館修撰官 姜渾 謹誌	

이곳에 합장하게 되었다. 侯는 네 따님을 두시어 長女는

【4편】 감찰 沈光宗에게 출가하여서 한 아들을 두어 이름이 義欽이요, 다음은 金叔鈍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생원 宋好智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崔澋에게 출가하였다. 侯의 장남은 일찍 죽고 작은 아들인 希壽가 後嗣를 이었는데 생원이 되어서 현감 梁治의 따님을 婚娶하여 한 아들이 있으니 이름이 礪(유년에는 礪였으나 후에 魯로 개명한 것으로 보임)요 庶子로는 百壽, 千壽, 億壽가 있고 그 외는 어리다.

1505년(燕山 11년) 12월 30일 立石
 정헌대부 행 승정원 좌승지 겸 춘추관 수찬관 姜渾 지음,
 아들 유연재 希壽 씀

— 靑庵 金詳浩 / (書)전 이사장 / 대종회 고문 —

대종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출처 : 대종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물계서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8. 25 기준)

◎ 3천만원

(翼)석한 - 대중회장(광진)

◎ 2억원

(翼)수원 판결사중증

◎ 1천만원

(文英)문영공중회 (都)봉회 - 명예회장 (文)파중회
(按)형남 - 파중회장 (翼)파중회수원 참의공중중

◎ 7백5십만원

(書)파중회

◎ 5백만원

(郡)준회 - 파중회장, 파중회, 광탄중증, 칠정문중
(부울경)부산 · 울산 · 경남중친회
(文)영환 - 총렬공기념사업회장, 참의공중중-완주
(按)파중회 (翼)목사공중중, 부령공중회, 효소공중중

◎ 3백만원

(郡)평택자산공중중 (文)경기광주문중 (都)파중회
(提)파중회(생원공)
(翼)효헌공중중, 실경-대구중친회 고문

◎ 2백만원

(郡)장안중중 (文)포천별제공중중 (安)파중회,
(按)소윤공(지주사공)중회 (安東)안동중친회
(翼)재용 고문, 재남 고문, 문정공중회

◎ 1백3십만원

(郡)재근 - 부안

◎ 1백만원

(郡)성목 - 인천, 재이-강진, 중회-부산, 태영 - 사무총장
(典)처사공중회, 재윤-전파중회장 (副)원호-파중회장
(文)윤만 - 파중회장, 왕용 - 포천, 용구-광진, 영옥-광주, 음성공중회
(都)항회 - 대구화랑, 수도권중회 (大)파중회-보성
(提)태현-문영공회장, 수도권중회, 규원-파중회장
(按)영만-진천, 철회-안양, 선회-전파중회장, 태윤-대중회부회장
(翼)윤목-효소공회장, 영수-파중회장태신-중구, 재택-논산,
재영-수원, 강릉중회, 수돈(영흥사), 영화, 화자, 옥늬-대구,
성회-부여, 강식 - 하남수원 봉직량공중회관식-인천,
정목-전대구중친회장
(正)파중회수선-파중회장(大邱)대구중친회

◎ 7십만원

(文)수길-대구중친회장

◎ 6십만원

(文)호길-대구중친회 고문

◎ 5십만원

(郡)양천중중회(副), 영식(춘식)-대구
(文)동철-이천, 재극, 재관-음성 (都)정-수도권회장, 원중-법무사
(大)태권-파중회장 (提)용식-의정부 (按)서령공중회-증평
(翼)주식-영주, 진섭-대구, 태철-수원, 진수-동대문, 태연-인천
수인-고창, 형식-안산이목중친회, 관찰사공중중-동두천,
인회-강릉(書)각영-파중회장, 덕영-강동, 규상-시흥, 주일-안양, 상호-강남
세영-일산, 규삼, 주현-廣州, 무영-송파, 규석-중랑, 정수-안양
관영-양평, 석영-성남, 수영-용산, 주형-서초
(正)태형(성립)-춘천
(골프)안동골프회 인천중친회

◎ 3십만원

(郡)희동, 성대-정읍(형제) (典)헌덕-대중회 감사(副)규훈-철원
(文)영운-廣州, 재만-대구, 재원-포항
(都)회수-중랑, 희운-대구, 창화-의성
(提)재삼, 석음, 태완-천안 (按)사부-청주, 태성-김포, 용원-세종
(翼)동화-석한회장 자, 광일-안동 동수 자, 원회-논산 재택 자
근식-동대문, 경식-이천, 태용-용인, 선화-당진, 나주중친회
순화-영주, 성우, 재준, 재석, 재돈-대구, 재환-보은,
용관, 대현, 세훈-고창

◎ 2십만원

(郡)발용-하남
(文)태경-구로 윤만 자, 천만-廣州, 증평도사공중중
주회, 명화-포항 재원 자, 신묵-남양주
(都)옥수-파중회장, 시걸-부산, 정수-동대문, 태성, 재선-사촌,
영복-의성
(提)덕응-공주, 태영-수원, 정환-제주
(翼)하경-석한회장 女, 호묵-대구 영화 자, 재진-당진,
준식-수원 태철 자, 종빈-의정부 영수회장 자, 재천-홍천
재교-안동회장, 종묵-대구문경공회장, 우회-논산 재택 자

◎ 1십5만원

(翼)진현-안동

◎ 1십만원

(郡)대용-용인, 만화-파주, 필구(범직)-홍성, 준용-인천(典), 진회-대구
(文)재성-음성, 태식-도봉, 동호-양주 윤식 父, 윤식-양주, 태길-안산
윤희, 윤정, 윤미-대구 재만 子女, 재덕(순오)-음성
(都)재수, 원회-의성 (大)재남-나주, 태종-광주, 성무-보성
(提)운철-성북, 대응-천안
(按)봉진-성남, 용국-여주, 용주-용인, 용화-인천, 태용-여주
(翼)태진, 태경, 진경-석한회장 孫, 보화-수원 재영 자, 선회-강화
경민-대구, 루아-영화 부회장 손녀, 철회(예천), 기범-동대문
홍교, 시교-대구, 선교-수원, 동수, 지원, 태은-논산 재택 孫
상희, 철우, 재옥, 재정, 재춘, 재진, 재규-대구,
기수-화성, 만천-원주
(正)수진-남양주, 경랑-김포

◎ 5만원

(文)동묵-음성 (提)재응-광진 (翼)정화-대구, 재성-무주

◎ 3만원

(按)태길-은평, 영화-청주 (翼)재남-대구

성금 모금 계좌안내

물계서원 복원에 따른 성금 모금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중회

※ 반드시 소속(파)과 이름을 적어서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문화원 회원 김시민장군 유적지 문화 탐방

14일, 16일, 17일 3일간 회원 1,000명 김시민 장군 유적지 및 유관순 열사 유적지, 독립기념관, 탐방



진주문화원(회장 김길수)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1,0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호국 충절의 고장 천안이 낳은 진주대첩의 영웅 김시민장군 유적지 탐방을 통해 장군의 애민 애국 사상을 체험하고 생가지 복원을 염원했다.

진주문화원은 지난해 11월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해, 이하 충무공기념사업회)와 MOU를 체결하고 김시민장군 선양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역사 문화탐방은 김시민장군 생가지 복원과 선양사업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무공기념사업회 김법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님과 회원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풀숲만 무성한 생가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대원군 때 폐철(廢撤)된 김시민장군 사당인 충렬사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매년 탄신문화축제와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는 진주문화원과 공유하면서 김시민 장군 선양사업에 함께하겠다”고 하였다.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은 “충무공김시민장군의 생가지 복원을 염원하고 있으며, 미력한 힘이지만,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생가지를 중심으로, 유허지 일대가 역사문화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하였다.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제21대, 22대)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세종 간 TG 명을 김시민 장군 TG 명으로 추진 중이며 또한, 기념사업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였다. 천안가정교회 송인영 대교회장은 김시민 장군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쉽게 설명하여, 문화탐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방문을 환영한다며 음료수 1천 개를 흔쾌히 찬조했다.

유허지에 접해 있는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버스 10여 대가 주차하기 어려워, 탐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었지만, 천안 동남경찰서(서장 김보상)교통계의 협조로 한 건의 사고 없이 탐방이 잘 마무리되었다.

김시민 장군의 유적지는 천안 외에도,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 김시민 장군 묘소가 있는 충민사(忠愍祠)가 있으며, 괴산군에서는 해마다 음력 9월 초정일에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승전지인 경남 진주시에는 진주성이 있고, 제향을 올리는 창렬사(彰烈祠)를 비롯하여 많은 유적이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위치한 김시민 장군 유허지는 후세들에게 국난 극복의 명장이자 영웅인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교육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충무공김시민기념사업회 회장 태완—

유송 김용국 (按)사무국장 서도대전서 특선 ‘영예’



유송(宥松) 김용국(金容國) 안림사공과중회 사무국장이 ‘제30회 대한민국 서도대전’에 한문 서예 해서와 행초서 부문에 1점씩을 출품

하여 해서(楷書) 작품은 특선으로 입상했고, 행초서(行草書) 부문에 출품한 작품은 입선하여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시상식을 갖었다.

특선 작품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연작시 ‘이 얼마나 유쾌하랴[不亦快哉]’ 20수 가운데 12번째 수를 해서로 쓴 것이다.

雲牋闊展醉吟遲(운전활전취음지)
흰 종이를 활짝 펴 두고 시상에 잠겼다가
草樹陰濃雨滴時(초수음농우적시)
우거진 녹음 속에 비가 뚝뚝 떨어질 때
起把如椽盈握筆(기파여연영악필)
서까래 같은 붓을 손에 한껏 움켜쥐고
沛然揮洒墨淋漓(패연휘쇄묵림리)
먹물이 흥건하게 일필휘지하고 나면
不亦快哉 (불역쾌재) 이 얼마나 유쾌하랴.
— 고전번역원 —

김용국 사무국장은 도정공(휘 공석)의 17대손으로 농협중앙회 농협사료 마케팅본부장을 지내고 현재 경기 여주 가남에서 광역계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해밀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꾸준하게 서예 공부에 매진하여 지난해 서도대전에서 입선(해서)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한민국 ‘서도대전’에서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안사연, 충무공 김응하 장군 전적지 및 중국 고구려 유적 답사

선조님의 사적(史蹟) 연구와 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는 지난해 5월 충렬공 김방경(金方慶) 일본 원정로 답사에 이어, 이번에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金應河)장군의 중국 심하 전적지 및 동북 3성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충무공 김응하장군 전역(戰域) 답사는 이미 3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미루어지다가 이번에 안사연 해외 답사 여덟 번째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 답사일정 : 2024.6.16. ~ 6.20 (4박 5일)
- 답사지역 : 심양. 무순. 통화. 집안. 송강하. 이도백하. 용정. 연길 등
- 참가인원 : 20명

■ 6월 16일(일) 맑음 / 첫째 날

오전 6시 20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가이드(최인호) 미팅과 신목 학술위원장이 준비한 답사자료집 1권씩 받아 들고 출국수속과 함께 대한항공 KE831편에 탑승하였다. 8시 30분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심양 타오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전용 버스에 올라 현지 가이드 최철수(조선족)와 인사를 나눈 뒤, 첫 번째 코스인 심양고궁으로 이동한다.

1. 심양고궁(瀋陽古宮)

중국 심양은 1625년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가 요양(遼陽)에서 이곳 동북지역 요녕성(遼寧省)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청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되고 이후 심양은 '성경(盛京)'으로 격상되었다. 1636년에 청 태종 홍타이지(皇太極)는 국호를 '후금(後金)'에서 '청(淸)'으로 바꾸고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그 해 한겨울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仁祖)는 끝내 삼전나루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는 굴욕을 당했고, 이 패배로 청나라와 화친을 거부하며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하던 청음 김상헌과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물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도 이곳에 인질로 잡혀 왔다. 1955년에는 정식 명칭을 '심양고궁박물관'으로 바꿨으며 베이징 고궁과 함께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온전한 중국 황실 궁궐 중의 하나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현지 시각 오후 1시쯤 심양고궁을 나온 일행은 점심을 먹고 광해군 때 조·명 연합군의 전역(戰域)이었던 무순시(撫順市)로 이동한다. 무순은 성도인 심양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로 시내 중심가에 혼하(渾河)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의 한강처럼 양쪽에 고층 건물과 아파트들로 잘 어우러져 있다.

2. 사르후 전투지



사르후 전투는 누르하치가 1616년 금나라를 세우고 3년이 지난

1619년에 명나라가 누르하치를 견제하려고 조·명 연합군을 편성하여 이곳에 서로군(西路軍) 장수 두송(杜松)을 배치하고, 동로군(東路軍)에 유정(劉綎)을 편성하여 강홍립의 조선군 좌영장 김응하(金應河)장군을 심하(深河/富察)에 배치하였다.

3시 40분 요녕 성 무순 현에 있는 사르후 풍경구에 도착하였다. 혼하의 대화방(大伙房) 저수지 서쪽 언덕에 세워진 '사르후전투서사비[薩爾滸之戰書事碑]'를 보기 위해 전동차를 타고 숲길을 따라 2km 정도 올라간다. 넓은 벌판의 전투지역은 농업용수를 위해 대화방저수지[大伙房水庫]가 만들어지면서 사르후 적전지는 물에 잠기고 호수 주위로 관광지가 개발되었다. 전동차에서 내려 안내도를 보니 '살이호풍경명승구[萨尔浒風景名勝區]'라고 적혀 있다. 거대한 비각과 비석은 청나라 누르하치가 명-조선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륭제가 1776년에 세운 것인데, 원본은 마모가 심하여 심양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곳은 새로 세운 복제본이다.

3. 김응하 장군 심하(深河), 반절구전장유지(半截溝戰場遺址)



1619년 명나라 요청에 따라서 조선군 13,000명이 파병되었고 부차[不察] 전투에서 8,000명이 전사하였다. 이 전쟁을 조선에서는 심하전역(深河戰役) 또는 심하지역(深河之役)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부차지전[富察之戰]이라고 한다. 조선군 좌영장 김응하(金應河)가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자, 전세가 불리해지는 것을 지켜본 도원수 강홍립은 '명의 요구에 마지못해 출병했다'라고 알리고는 투항해 버렸다. 조선군의 전사는 옛 기록으로 기억될 뿐, 현장에는 표지 하나 없이 400년 전의 지형도 변해가고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이광(李光, 환인문화여행사 유한공사) 총경리는 '반절구전장유지'를 설명하면서 400년 전인 1619년 조선군의 좌영장 김응하 장군이 끝까지 고군분투하다 전사한 심하 전투 현장을 고증하여 이곳 반절구 계곡을 김응하장군 전사지로 비정했다. 필자가 조·명 연합군이 전멸한 사르후 전투지역에 관한 내용을 묻자, 이광(李光) 총경리는 사르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했으며, "홍당석(紅塘石)이 동로군인 조·명 연합군이 전멸한 곳이고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부친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먼저 설명할 정도로 관련된 역사 지식이 있었고, 지명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예전에는 버드나무가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하며, 옥수수 밭 사이로 1989년에 세운 '반절구전장유지(半截溝戰場遺址)'라고 쓴 비석에는 '시급문화보호단위(市級文化保護單位)'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소는 辽宁省 本溪市 桓仁满族自治县 华来镇 红塘石村(半截沟)이다. 오후 8시경 환인 만족 자치현에 있는 식당에서 현지식으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통화시(通化市)로 이동하여 중동 라투어모진[中东拉图摩根]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 6월 17일 (월) 맑음 / 둘째 날

호텔식으로 식사를 마치고 약 2시간을 달려 집안(集安) 환인 지역의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 풍경구에 도착했다. 입구의 A가 5개나 붙은 <국가급 풍경구> 매표소 지붕에는 <호태왕비(好太王碑)>라 쓰인 커다란 글씨와 유네스코 지정 안내판을 지나면 역시 금자(金字)로 호태왕비(好太王碑)라고 현판을 붙인 누각이 보인다. 들어가면서 내부 촬영은 안 된다고 가이드가 다시 주의를 준다.

4. 광개토대왕 비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의 능비로, 414년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을 연대순으로 4면에 기록하였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 비는 농부가 쉬면서 담배를 피우다 이끼가 낀 돌에 글씨가 예사롭지 않아 공안에 신고하여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호태왕비(好太王碑)로 불리는 이 비석에는 44행에 대체로 각각 41자씩을 담아 총 1,775자의 예서체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한 일본인 스에마스 야스카즈(末松保和)는 비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석했다.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신라 등을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그러나 민족사학자 정인보 선생의 해석은 “왜가 신묘년에 오니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임나가라) 공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였다. 중국은 2002년부터 간도(間島)의 변경 지역에서 전개된 고구려사를 비롯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다.

5. 광개토대왕 능

태왕릉은 비석으로부터 걸어서 10분 정도의 같은 구역에 야트막한 야산처럼 보이는 곳으로 잘 정돈된 돌계단을 오르면 태왕릉이 보인다.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확장을 했던 위대한 광개토대왕의 무덤이다. 능을 내려온 일행은 간식으로 나무 그늘 주막에서 이 고장 옥수수과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태왕릉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장군총(장수왕릉)으로 이동했다.

6. 장수왕 능 / 장군총



일반적으로 ‘장군총(將軍塚)’이라고 부르지만, 무덤의 형식과 규모로 보아 왕릉급의 무덤으로 장수왕릉(長壽王陵)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평양 천도를 단행한 후 60여 년 뒤에 사망한 장수왕의 무덤이 국내성 지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국내성 도읍기에 사망한 마지막 왕인 광개토대왕의 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사각형 대형 화강암을 7층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방형 계단 석실묘는 외형상 피라미드와 비슷한 모습으로 무게가 대단하므로 맨 아랫단에 정호석을 놓아 고분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여 1,500년이 지났지만 비교적 보존이 잘 되었다고 한다.

7. 집안(集安) 압록강 (鴨綠江)

12시 10분 압록강 나무 데크로 잘 조성된 강변공원 뚝방에서 북한을 가까이 조망할 수 있으나 집 몇 채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흐르는 압록강 물에 손을 담그고 북한에서 운영한다는 공연장 뒷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조선족 불고기 식당이 있는데, 이 집에서 숯불에 구운 쇠고기·돼지고기 씬밥으로 점심을 마치고 백산시 무송현 송강하(扶松縣 松江河)로 이동한다. 약 3시간 30분을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는 스쳐 지나가는 고장마다 다양한 문화와 그 지역의 특징을 설명해주었다. 중간에 화장실만 개방한 휴게소에 잠시 들른 후 오후 6시에 백산시 무송현 송강하에 도착, 웬덤가든 란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 6월 18일(화) 구름 약간 / 셋째 날

오늘은 백두산 서파 코스를 등정하는 일정이다. 백두산 관광객이 많아 조금 일찍 서둘러야 줄을 덜 설 수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8. 백두산 서파코스

중국에서 장백산이라 부르는 백두산은 전용버스로 산문까지 가서 셔틀버스로 몇 번을 갈아타면서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며 천지로 가는 관문이 나온다. 백두산 가는 길옆에는 각종 취나물이 지천으로 깔려 있고, 자작나무 군락지와 원시림 습지에 야생화도 보인다.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나무는 보이지 않고 아직 녹지 않은 빙설이 구름 사이로 군데군데 보인다.

관문에서 총 1,442개의 계단을 올라야 천지에 닿을 수 있다. 중간에 2인 1조로 움직이는 가마꾼들도 만나는데 그들도 몇 번이나 쉬면서 오르기를 반복한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백두산 천지를 오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멀리 천지 위로 먹구름이 달려오다 흩어지길 반복하지만 이만하면 천지를 조망하는데 운이 좋은 편이다.

백두산의 날씨는 심하게 변덕스러워서 천지를 본다는 건 행운이며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전망 좋은 자리를 차지하며 저마다 사진 찍기에 바쁘다. 약속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천지(天池)는 내일 북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올랐던 계단을 다시 내려와 관문 주차장에 있는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곳 식당에는 한국 소주와 라면을 진열대 올려놓고 판매한다. 소주 1만원

식사후에 전용버스에 탑승하여 금강대협곡으로 이동한다. 금강대협곡은 백두산 화산폭발 당시 용암이 흐르면서 이뤄진 깊은 골짜기다. 협곡 탐방을 마치고 이도백하(二道白河)로 이동한다. 이도백하의 지명유래는 비룡폭포(장백폭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천지에서 떨어지는 두 줄[二道]의 하얀 물줄기[白河]는 폭포를 이루어 송화강(松花江)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도백하로 이동하는 도중에 가이드는 농심에서 수입 판매하는 백산수의 수원지를 지나고 있다고 소개하며 백두산 물이 약 40km 흘러와 이곳 생수 공장에서 정제하여 공급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도백하 산서족도(山嶼足道)라는 곳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고 안도현(安圖縣)에 있는 진달래식당에서 삼겹살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 6월 19일(수) 맑음 / 넷째 날

이도백하(二道白河) 보석국제호텔[寶石國際酒店]에서 눈을 뜨니 오전 5시 30분이다. 오늘은 북파를 등정하는 날이다. 다행히 날씨는 좋다고 한다.

9. 백두산 북파코스



천지 정상까지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서파보다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가이드는 최대한 빨리 가지 않으면 줄만 서다 끝날 수 있다고 서두른다. 북파는 가파르고 굽은 길을 차를 타고 올라간다. 정상에서 만난 엄청난 인파에 놀라며 백두산을 중국 땅을 통해 장백산이란 이름으로 오른다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과 이러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 씁쓸함도 함께 스쳐 간다.

어제 서파에서는 약간의 구름 낀 날씨라면 북파의 날씨는 맑고 쌀쌀했다. 역시 전망 좋은 장소는 사진 촬영을 위해 많은 사람이 붐빈다. 그 사이로 장엄한 모습이 펼쳐지고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천지의 원초적인 풍광이 신비롭게 들어났다.

1983년 여름에 덩소평(鄧小平)은 천지를 조망하기 가장 좋은 북파 언덕에 표지석을 세워 '천지(天池)'라고 썼다. 하늘 연못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천지(天池)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유원지나 호텔 등에서는 발음이 같은 땅지(地)자를 넣어 천지(天地)라고 쓴다고 한다.

10. 비룡폭포(飛龍瀑布, 장백폭포)



비룡폭포는 원래 용이 승천하는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이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폭포 이름도 장백폭포로 불린다. 백두산 천지에 담긴 물이 북쪽으로 난 달문(闌門)을 통해 빠져나와 거대한 68m 높이의 절벽에서 두 줄기로 쉼 없이 힘차게 쏟아진다. 폭포 아래 온천지대에는 중간중간 돌로 온천수를 막아

놓은 작은 연못에서 온천수의 열기로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우리 일행은 기념 촬영을 마치고 온천수에 삶은 달걀과 옥수수를 구매하여 나눠 먹기도 했는데, 100℃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달걀은 반숙이다. 수직 절벽에서 떨어지는 세 갈래의 하얀 물줄기가 인상적인 녹색 빛의 호수, 녹연담(綠淵潭)을 둘러보고 오후 2시 연길의 백년돌술밥 집에서 비빔밥과 두부전골로 점심을 먹고 용정으로 출발했다.

11. 일송정(一松亭)

멀리 차창 밖으로 스쳐 가는 봉우리 비암산 정상에 일송정이 있다는 가이드 설명에 재빨리 핸드폰 줌을 당겨 찍어 보았다. 우리 선조들이 최초로 개척한 용정시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였고 산 정상에 일송정과 우뚝 선 소나무는 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상징이었다고 한다. 가곡[선구자]으로 더욱 알려졌다 하여 윤해영 작사, 조두남 작곡의 가곡 '선구자'의 가사를 음미해 본다. 일송정 푸른 숲은 홀로 늙어 갔어도, 한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윤해영, 조두남 이분들 모두 친일 인명 사전에 등록되었다. 일송정에 올라서면 흐르는 해란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지만 설명 듣는 것으로 대신했다.

용정은 인구가 약36만 정도 되고, 농사는 대부분 벼와 사과배를 재배한다. 지나는 곳곳마다 사과배 과수원으로 덮여 있다. 돌배나무와 사과나무를 접목하여 생산한 것인데 당도가 높아 인기가 좋다고 한다.

또한 연변대학 교수진이 28종의 이로운 미네랄이 함유된 된장에서 추출한 원료로 고량주(된장주[醬露])를 생산하여 연길시의 대표 술이 되었고 4대 음식으로는 어린양꼬치 · 냉면 · 찹쌀순대 · 개고기(보신탕)이 대표 음식이라고 소개한다.

조선족이 처음 두만강을 건너 거주한 지역이 통화현으로 조선족이 벼농사도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고, 주택은 한족과 구분하기 위해 팔작지붕 형태로 지었다고 하며, 시진핑이 다녀가면서 화장실 문화가 깨끗하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연길(延吉)시는 지린성 동부에 있는 도시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도시이며, 백두산 탐방객을 겨냥한 관광산업이 활발하여 도시 규모에 비해 호텔, 식당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한다. 한국과 개방 이후에는 이순재가 주연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방영하면서부터 한국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한류열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2시간여를 이동하는 내내 가이드 설명을 듣다 보니 어느새 연길 국제호텔에 도착했다. 오후 6시 30분 연길시에 있는 조선족 식당, 조우(朝牛)에서 양꼬치를 안주 삼아 연변의 전통주 된장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했다. 마침 재영 회장님 사모님의 팔순을 위해 간소한 케이크를 준비한 축하 자리도 마련했다. 2차로 인근의 노래방으로 옮겨 마지막 날의 여흥을 즐기고 숙소인 국제호텔로 돌아와 연길 시내를 가르는 부르하트강의 야경을 감상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 6월 20일(목) 맑음 / 다섯째 날

연변 국제호텔에서 뷔페식으로 아침 식사를 한 일행은 연길 외곽의 진달래 공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연변 농협마트에 들러 쇼핑하고 공항으로 이동한다.

4박 5일간의 추억을 쌓은 이번 중국 동북 3성 여행의 끝자락은 '연길 조양천국제공항'이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었고 아쉬움을 남긴 여행일지라도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11시 55분 출국수속을 마치고 대한항공 KE118편에 탑승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다.

-대중회 사무총장 태영-